

일 주 문



국제선센터 불교영어강좌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은 5월 1일과 7일부터 매주 수·목, 외국인 스님 초청 '왕초보 불교영어·중급 불교영어' 강좌를 연다.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수여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은 스님은 4월 18일 '길상화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20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불련 통합동문회장 취임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화 회장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중국인쇄박물관과 협약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은 4월 4일 중국 양주에 위치한 중국조판인쇄박물관(관장 서충문)과 고판화학술연구 협약을 맺었다.



박익후 씨, 중국정부 장학생 선발 금강대 박익후(통상통역중어학과) 씨는 한국국립국제교육원과 중국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에서 선발하는 중국정부초청장학금 장학생에 선발됐다.



산악개발박람회 대표작가 전시 불자화가 임무상 화백은 4월 23~25일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리는 산악개발박람회에서 평창올림픽 대표작가로 작품을 전시한다.

민추본 4월 15일 재능기부회원 위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능기부회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재능기부회원은 모금 및 후원관리 분야의 한문호 씨, 촬영의 이경민 씨,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신욱기 씨, 뉴스레터 제작 및 디자인의 박정혜 씨, 뉴스레터 필진의 김양희 씨다. 민추본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통일정보 구원을 함께 할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인사> 금강대 교직원 발령

△장민호 교학지원처장 △정이용 교무지원팀장 △박연석 학생복지팀장 △가인숙 경영지원팀장 △박혁하 시설관리팀장

“생활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필화 우리는선우 신임 이사장

“불교에는 결사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선우 역시 23년 전 순수 재가단체로 시작했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결사처럼 어렵고 혼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선우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가수행 공동체로 키우겠습니다.”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학장이 내홍을 앞둔 우리는선우 결사 선봉장으로 나섰다. 상조기금 6000만 원 실종, 회원 개인 정보 유출, 수익사업체보증금입의 결손처리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우리는선우에 지난 4월 12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임 이사장의 돌연 사퇴로 지도부에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다.

유 이사장은 단체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의식한 듯 평등·화합, 중생을 위한 간절한 원과 행, 자등명·법등명의 가르침대로 이끌어간다는 우리는선우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모든 의사 결정을 정법에 의거해서 하겠다”며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뉴스레터, 문자 등의 지속적 소통과 함께 재무 관련 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우리는선우 발족 당시 창립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유 이사장은 그간 선우를 둘러싼 갈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23년전 순수재가단체로 출범

내홍 겪으며 한때 위기도 겪어

젊은세대 영입해 활력불어 넣을 것

“우리는 선우는 창립 이래 독립성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체 법당을 마련하고 군 포교, 청년포교, 해외포교, 상조회 활동 등 슬한 실행활동을 해오기도 했죠. 지난 2~3년 동안 선우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동안 선우가 이런 업적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는 우리는선우를 세계적 재가단체로 키워내기 위해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의

불국토화라는 원을 세웠다. 앞으로 재가불자활동을 활성화할 생각으로 이를 위해 젊은 불자 영입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민 많은 이들이 마음의 짐을 털 수 있도록 현실적 답을 같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불자들을 끌어들이는 생각이다. 대상별 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어 경전 모임도 구상중이다. 젊은세대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신심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간간 있을 회의에서는 우리는선우가 주력할 사업을 정할 예정이다. 우선 활성화할 사업은 정기법회, 군 포교, 상조회, 청년회, 영어경전공부,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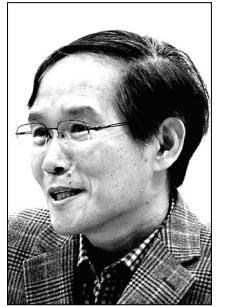
유 이사장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선우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경영학 저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와 불교와 삶에 대한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를 내는 등 신심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학장으로 재직하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은 올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MBA 순위에서 45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유 이사장의 리더십은 검증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효학술상에 박찬국·서광 스님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학 발전을 위해 수상하는 제5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서광 스님이 선정됐다.



박찬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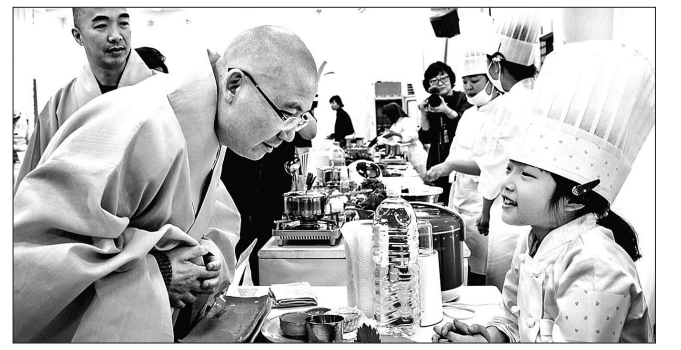


서광 스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4월18일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수부문 우수상에 박찬국 교수,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부문 우수상에 서광 스님을 선정할 데 이어, 석·박사과정 학생 부문에서는 강미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에게 은상을, 우동필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동상을 각각 수여하기로 했다.

제5회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교수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금 700만원, 비전임교수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400만원을, 학생부문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회 사찰 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4월 16일 보우당 향적원에서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이라는 주제로 ‘2014 사찰 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봄나들이용 도시락이나 직장인 간편 도시락, 아이들을 위한 건강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이 선보였다. 노덕현 기자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우리문화 알릴 것”

사단법인 '문화나눔' 개원한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

“우리나라 대표 문화사업 법인이 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4월 1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문화나눔 개원식’을 갖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의 부설법인으로 국제포교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문화나눔은 2인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회로 구성됐으며,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 2명,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마련했다. 이 밖에 업무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사업을 전개한다. 권영구 회장은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



4월 12일 문화나눔 개원식 가져 국제포교사 활동의 장 넓힐 것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국제포교사회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주류를 이루는 불교문화유산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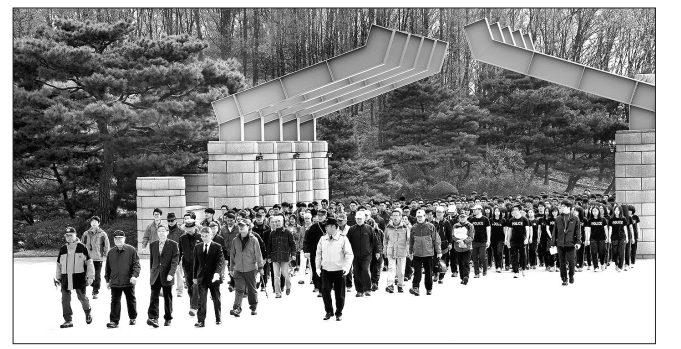
침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문화나눔'을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화나눔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찰 및 불교문화재 영문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인터넷 및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영구 회장은 “국제포교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국제포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경륜은 뛰어나지만 이를 조직화해 사회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2011년부터 추진돼 왔다”며 “문화나눔의 출발은 국제포교사들에게 활동의 장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는 종단의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잘 하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45회 4·19 동국인 등산대회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교수·직원·학생 3,500여 명이 참가하는 동국대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4월 11일 북한산에서 개최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우수동 4·19혁명 기념탑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가해 동국대 학생 12명에게 헌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뜻을 기리며 그 뜻을 계승하고 단결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720-2114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습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분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된 음질의 녹음기능